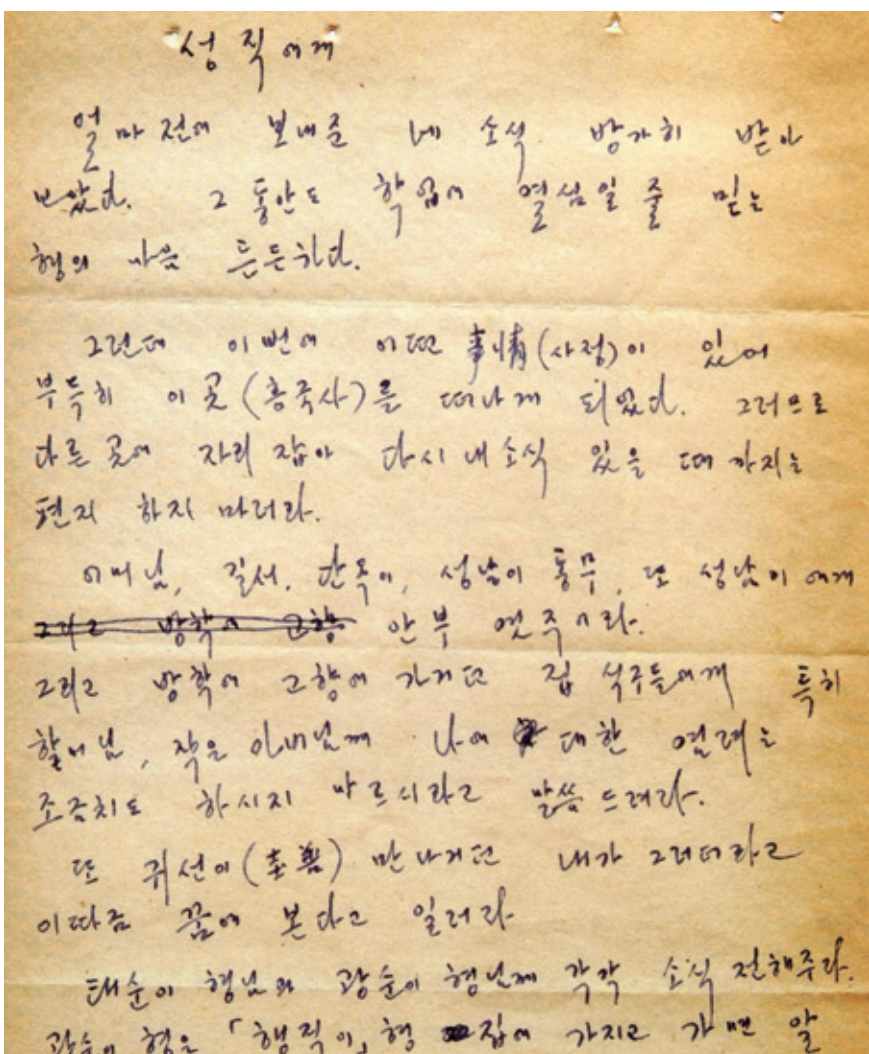


오늘의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56년 만에 공개된 법정 스님의 서신... 출가 결심하고 고뇌하던 모습 담아



이 시대 '무소유' 사상 정신을 남기고간 법정 스님. 스님이 이승에서의 집을 벗고 자유롭게 떠난 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났다. 스님은 무소유 사상과 더불어 많은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왔다.

책은 이제껏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던 스님의 또 다른 글들이다. 출가를 결심한 1955년부터 불일암으로 들어가기 전인 1970년대 초반까지 10여 년 동안 사촌동생에 보내온 일상의 편지들을 원본 그대로 엮은 것이다. 편지 속에는 아직 다들여지지 않은 글과 고뇌하던 청년 법정의 모습이 그려진다. 편지글을 통해 우리는 법정 스님이 가족을 그리워하고, 동생을 챙기는 다정다감했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출가를 했지만, 중학생인 동생과 할머니, 어머니를 떠나왔다는 사실에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살았다. 대체로 편지글에는 스님이 동생을 향한 미안했던 마음들이 강하게 표현돼 있다.

"얼마간의 수도를 쌓은 뒤엔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 것이다. 그 동안은 죄인이다. 죽일 놈이다. 할머님, 작은아버지 모두 나를 얼마나 원망하라. 오늘의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다 잊어버려야 한다" 편지에는 당시 스님의 심정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책을 엮은 사촌동생 박성직은 유년 시절부터 법정 스님과 한 집에서 같은 방을 쓰며 친형제처럼 자라온 사촌동생이다. 그는 스님이 출가하고 방황하던 청년 시절, 스님이 보내온 편지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결혼한 뒤에도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돌아가신 후에도 스님을 대신해 20여 년 동안 제사를 지냈다. 박성직은 "곰 많던 유년 시절, 스님의 지혜와 인정 넘치는 편지글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크게 어긋나지 않게 살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스님의 편지를 통해서 스님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 책들도 잘 있는지"라고 말하며, 속가에 두고 온 책들을 공급해 하기도 하고 책들을 부쳐달라고 부탁했던 글도 담겨있다. 스님이 아우에게 부탁한 책 목록을 살펴보면, 문학, 철학, 사상가들의 책들까지 실로 다양하다. 책을 부칠 때에는 책이 다치지 않도록 포장하는 방법까지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 꼼꼼했던 스님의 성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밖에도 스님은 아우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며, 한창 공부하던 시기의 동생에게 간절한 충고와 당부들 빼놓지 않는다.

고백은 평범한 글이다. 하지만 그 글들을 보면서 스님의 다들여지지 않은 문제들을 비롯해 사적인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정에서 신선하다. 또한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법정 스님의 서체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동생 박성직은 편지 공개에 대해 "평생을 걸쳐 써온 주옥같은 글들도 모두 말뚱이므로 거두어들이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청개구리 짓을 하게 됐다"며 "책을 낸 연유는 스님이 수행자로서 지니신 기상이 더러 누군가에게는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졌을지 몰라 스님 내면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면들도 있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56년 만에 공개되는 법정 스님의 친필 편지를 통해 독자들은 세속을 벗어나 출가를 결심하고 고뇌하던 청년 '박제철'을 만나게 될 것이며, 눈 푸른 행자 법정도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엮은 이 박성직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형이었고,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엿볼 수 있다.



미음하는 아우야! 박성직 엮음 녹아원 1만8500원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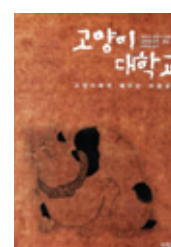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모두 다 괜찮아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별 것 아닌 일에 발끈해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며,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프랑스 최고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 치료사인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스스로 마음을 보듬고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통찰력과 현명함,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제시한다.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다산출판사 2만2000원

고양이 대학교



〈고양이 대학교〉는 일본의 아마오카 텃슈와 치바 슈사쿠를 비롯한 무도가, 교육자, 사상가, 정치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무도사이며 마음 수양서다. 책은 기술을 수련하는 단계, 기세를 단련하는 단계,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 자연과 융합된 관계를 통해 진정한 달인(達人)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또 노장사상을 비롯한 동양철학과 선불교사상이 어우러져 철학 교양서로서도 적합한 책이다.

이사이 쇼잔시 지음/민트쿠스 9800원

고차수로 떠나는 보이차 여행



고차수(古茶樹)는 수령이 수백 년에 이르는 '오래된 차나무'를 말한다. 고차수는 윈난성(雲南省, 운남성)은 오연 없는 전혜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보이차를 만드는 특별한 나무다. 책은 전체 생산비율에서

5%를 차지하고 있는 고목차나무를 중심으로 윈난성의 고차수와 보이차에 얽힌 소수민족의 삶과 차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10여 년간 보이차의 뿌리를 찾아 윈난성의 깊은 산고를 구석구석 답사하고 직접 경험해 연구할 결과를 기초로 보이차의 궁극음을 풀어내고 있다. 차의 역사서부터 중국 정부의 차 산업 정책 전반까지 아울러 이야기한다. 책에는 고차수를 둘러싼 생태 환경 및 차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산골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이 70여 컷의 사진에 담겨 있다. 모든 자료들은 대표화 해독자들이 보이차 세계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이은정 지음/인문출판사 3만5000원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다산이 마셨던 차는 딱차였을까? 차는 초의에게 차를 배웠을까? 초의가 다산에게 차를 배웠을까? 우리 시대 대표 인문학자로 알려진 정민 교수가 조선 시대 차 문화사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책은

18세기 이후 조선 시대를 풍미한 차 문화의 흐름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담고 있다. 차에 관한 선 문외한이었던 정민 교수는 2006년 가을 <다산선생 지식경연회>를 펴낼 당시, 자료를 보기 위해 강연을 찾았다가 우연히 <동다기>를 찾아냈다. 이 일을 계기로 차 문화 연구에 깊이 빠져들어 차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서(부풍향차보)와 각종 차 관련 저작 및 편지 등 수많은 사료들을 잇달아 발굴해 학계 최초로 소개하며 우리 차 문화를 다시 썼다. 정 교수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간의 차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

정민 지음/김영사 3만5000원

한국의 차 문화 천년3



책은 삼국시대의 고려 때 창작된 시문(詩文)중에서 '한국의 차 문화'가 담겨 있는 다양한 예문을 엄선해 번역했다. 책은 이미 2009년 6월 1, 2권으로 출간된 바 있다. 차와 관련된 오랜 문화적 전통은 동아시아의 문

화적 전통을 이해하는 주요한 코드이다. 한국에서는 차 문화 관련 문헌 자료의 정리와 소개가 일부 애호가들의 손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져 왔다. 때문에 전문 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내용이 소략하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많았다.

〈한국의 차 문화 천년3〉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이어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차 문화에 관한 문헌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 이르는 한국의 차 문헌을 시대별로 정리해 차 문화 연구의 기초 자료는 물론 차 문화 이해를 도와준다.

송재소·유홍준·정해명·조창록·이규필 엮음/김영사 2만8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시초기	명진	이출
2	기도	법륜	정토
3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보경	민족사
4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김정호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7	마음하는 아우야	박성직	녹아원
8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9	바다 밑의 진흙소 달을 물고 뛰네	해암	비움과소통
10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집집 숲	전영우	온주사

* 불서출판 온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온주사 (02) 3672-7181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분다 * 오심, 구토,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할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로기 (02) 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필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적극간담, 오심진조, 요추배개 등 지배할당)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롬비니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물용 인기리에 판매되어 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태백 콕 크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반응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여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들의 마음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면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튼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효동선각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시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문의전화 : **금강의로기 (02) 723-0099**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답터, 테이프 3개, CD 2개 특별가 54,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합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르고 있던 몸의 모든 기운을 내뿜는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양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에 걸린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로즈마리는 능인향양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성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된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라벤더는 능인향양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석희 현대불교신문사